루앙프라방, 불교·관광 공존 꿈꾸다

관광객으로 훼손되는 불교 전통에
도시 영혼 지키는 착한 여행 뜬다

김민재 객원기자


스님과 관광객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 출처=오렌지 로브 투어 소개 영상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전직 스님들이 이끄는 불교 관광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13일 영국 공영 방송사 'BBC'는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불교 관광 소식을 전했다.

라오스 북부의 고도(古都) 루앙프라방은 한때 조용한 영적 도시였다. 메콩강과 칸강이 만나는 이곳은 불교 유산이 깊게 배인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스님들의 수도'로 불린다. 약 5만 명이 사는 이곳에만도 1000명 가까운 스님이 살고 있어 '세계에서 인구 대비 스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불린다. 또한 16세기부터 이어져 온 33개의 아름다운 사원이 자리해 '라오스 불교의 심장'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2021년 라오스-중국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조용한 도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교통이 편리해지자 관광객이 급증했고 그에 따른 상업화도 빨라졌다. 특히 아침 탁발 의식과 같은 전통 불교문화가 관광 상품화되면서 현지의 반발도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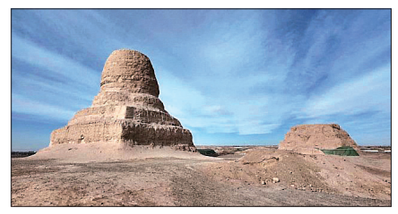
전직 스님이었던 아낫 캄표는 "루앙프라방은 14세기 라오 왕조의 수도였으며 지금도 33개의 사원과 황금 불상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다"면서 "도시 이름도 라오스의 국보 '프라방' 불상에서 따온 것으로 현지인들은 불상에 예를 올리고 매일 탁발에 참여하며 공덕을 쌓는 삶을 살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관광객 대부분은 이러한 전통을 알지 못한 채 인생샷 명소만 찾고 휴대폰 속 장면만 기억하고 진짜 루앙프라방은 놓친다"면서 "일부 관광객은 스님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거나 사원 불상을 훔쳐가는 등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루앙프라방의 불교 전통을 지키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올바른 관광 문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루앙프라방의 영혼을 회복하는 데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었다. 진짜 좋은 여행은 지역을 존중하고, 사람들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자세에서 시작된다. 그게 바로 좋은 업(業)을 짓는 길"이라고 밝혔다.

아낫 캄표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은 몇몇 전직 스님들이 함께 뜻을 모아 '오렌지 로브 투어(Orange Robe Tours)'와 '스피릿 오브 라오스(Spirit of Laos)' 불교 전문 여행사를 설립해 현지 불교문화와 전통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들은 관광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中 모얼사원, 10대 고고학 신발견 선정

중국 최서단 불교유적
실크로드 불교사 증거


모얼사원 유적지의 불탑. 사진출처=goo 뉴스

중국 신강 위구르 자치구 카슈갈 지구의 모얼사원 유적(莫尔寺遺跡)이 지난해 중국의 전국 10대 고고학 신발견 중 하나로 선정됐다. 지난 6월 11일 일본의 'goo 뉴스'는 모얼사원 유적에 대하여 상세 보도했다.

모얼사원 유적은 카슈갈 지구 카슈갈시의 쿠마타즈산 남동쪽 기슭에 소재하고 있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불교사원 유적 가운데 최서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원후 1세기부터 조영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카슈갈 문물 고고연구소는 해당 유적지를 6차례에 걸쳐 발굴조사하였으며 "사원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 되었고, 9~10세기경에 버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또 연구소 측은 "유적지에서는 도기, 동기, 석기, 목기, 골기, 직물 등 총 3만 점 이상의 유물이 출토됐다. 특히 사원건물은 모두 흙으로 조성되어 중국에서 발견된 토조건축 가운데 크고 오래된 곳"이라고 밝혔다.

사원이 소재한 카슈갈 지역은 고대 실크로드의 서역 남도와 서역 북도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해 서쪽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와 등 인도, 페르시아, 지중해 문명과 중국문명이 교차하던 중요한 교역점이다. 실재 이 유적지에선 고대인도와 간다라와 중원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만나 융합된 유물들이 대거 출토됐다.

모얼사원 유적은 중국과 서역에 불교가 전래된 초기의 평지형 대형 불교사원의 전형적·대표적인 예로서 초기 불교 사원의 배치와 발전, 변천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꼽힌다. 또한 실크로드를 통한 불교의 전래와 서역에서 전래된 불교의 중국화 과정이 시작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유적지를 10대 발견 중 하나로 꼽으며 "문명 간의 교류와 배움, 그리고 중국문화의 국제적 포섭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여성불자, 새로운 변화의 길 개척하자"

제19차 세계여성불교대회 성료
6월 16~20일 말레이시아 쿠칭서
'전환기 불교 여성, 변화 모색'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6월 16일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린 '제19차 세계여성불교대회' 개막식에서 세계 여성 불자들의 지혜와 협력을 당부했다. 사진 제공=전국비구니회

세계 여성불자모임 샤카디타가 주최한 제19차 세계여성불교대회가 6월 16~20일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최됐다. '전환기의 불교 여성, 변화를 모색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사캬디타 코리아를 비롯해 전 세계 여성 불자 80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16일 개막식 격려사에서 "샤카디타 대회는 전 세계 불교 여성들이 두 해마다 한데 모여 지혜를 나누고 서로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장"이라며 "대회를 준비한 말레이시아 조직위원회와 불교를 넘어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대표하는 분들께 깊은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대회의 주제인 '변화'는 모두가 직면한 과제"라며 "우리 불교 여성들은 이 변화의 시대에 더욱 단단히 뭉쳐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회는 세계의 명상, 논문 발표, 워크숍,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논문발표 주제로는 △불법의 지속과 전승 △변화를 헤쳐 나가고 실천하는 여성 수행자들 △출가자와 재가자,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다 △변화와 치유를 위한 실천 모델의 모색 △불법의 전승과 권위 △성폭력에 대한 토론 △불교 네트워크: 돌봄, 교육 그리고 전환 △전통의 재해석, 잚의 전환, 교육의 확장 △불교 여성 안내서에 관한 토론 △불교 전통 속 여성의 위치가 다뤄졌다.

한국 참가자들의 △한국 간화선 명상 △한국 비구니 승가 지도자의 역할 변화 △한국 '힙 불교' 변화 속 여성 재가불자들의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 등의 논문도 발표됐다.

이와 함께 '국제 샤카디타 조직의 중요성', '마음과 가슴 속에 자비의 꽃을 피우다', '마음챙김 글쓰기', '불교 영적 돌봄' 등을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

'붓다들의 딸'이라는 뜻을 가진 샤카디타는 1987년 설립됐다.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국 여성 불자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교육과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대만, 네팔 등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세계불교여성대회를 개최해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수령 기자

베트남 불교 승가, 닌빈성 본부 신축

사부대중 교육 · 불교 홍보 이용



닌빈성에 신축될 닌빈성 VBS 본부의 조감도. 사진출처=베트남뉴스

6월 14일 오전 베트남 닌빈성의 베트남 불교승가는 닌빈성 본부의 신축 기공식을 개최했다. 베트남의 소식을 전하는 '베트남 뉴스'는 기공식의 모습을 전하며 해당 행사에 베트남 불교 승가(VBS)의 상임위원들을 비롯해 각 지구 및 시의 불교집행위원회, 다수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닌빈성의 베트남 불교승가는 1992년 이래로 호알루시의 축칭사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른 건물의 노후화와 사부대중의 증가, 성내 불교의 활동 등을 위한 새로운 본부 건물의 신축 요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7월 닌빈성 인민위원회는 호알루루시 닌칸구에 면적 5,400평방미터의 닌빈성 베트남 불교승가 본부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세워지는 건물은 3층으로 각 층의 법당, 교육원, 사무동과 요사채로 이용될 예정이다. 닌민성 베트남 불교승가는 "본부건물은 현대와 전통적인 건축 양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자연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사부대중에게 열린 공원과 호수를 함께 끼고 있다"고 전했다.

본부 건물이 완공되면 닌빈성의 베트남 불교승가 측은 해당 건물에 출가대중에 공식적으로 하안거를 보낼 수 있는 선방과 불교도서관을 만들고 이 공간을 단순히 출가 대중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베트남 불교문화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젊은 세대들을 교육하는 복합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닌빈성 VBS측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비용들에 대해 베트남 국내외의 사부대중의 보시를 요청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FINE TERRA
love is fine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